

감사하고...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의 발을 감사가 닦아주고 있다.

협동하고...



청소년들이 색연필로 돌아가면서 그린 '협동 그림'

공감하고...



상처받은 기억을 깨낸 청소년을 감사가 안아주고 있다.

“이젠 괜찮아” 안아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본보 힐링 캠프 2박3일...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열일곱 살 여학생 다영이는 쑥스러운 듯 볼
잡은 양말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뻘 나이의
강사도 한사코 다영이의 양말에 매달렸다. 실
랑이 끝에 다영이가 포기한 듯 발을 내놓고는
눈을 감았다.

강사는 다영이의 발을 따뜻한 물에 넣은 뒤
손으로 정성스럽게 어루만졌다. 강사가 말했
다. “어린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상처 줘서
미안했구나.” 다영이가 반짝 눈을 떴다. 표정
은 복잡해 보였다. 강사가 같은 말을 반복하
자 다영이가 다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입가
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다영이는 “누군가 내
발을 닦아준 건 처음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
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주최한 ‘학교이탈 청소년 캠프’
에서 다영이는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강사들이 1대 1로 아이들 발을 닦아주는 세족
식은 캠프 첫날인 지난 3일 밤에 있었다. 민영
이와 규석이는 곁연쩍다는 듯 처음에는 머리
를 급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편하게 발을
말랐다.

◆“저 안 갈래요”=캠프에 참가할 아이들
을 모으는 작업부터 쉽지 않았다. 당초 본보
인터뷰에 응한 학교이탈 청소년 40명을 중심
으로 섭외를 시도했지만 상당수가 연락두절
상태였다.

그 사이 일부 아이들은 범죄에 연루돼 소년
원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로 복귀한
아이들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들도 시간을 내 캠프에 참석하기 어려웠
다. 결국 서울교육청 평생교육국 소속 ‘학
교 밖 청소년팀’과 가칭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상담 등 중심으로 섭외를 진행했고 캠프
정원인 6명이 참여를 약속했다.

두 명은 캠프 이를 전 연락이 끊겼다. 규석
이는 캠프 전날 “못 갈 것 같다”고 통보해 왔
다. 규석이는 오토바이 사고를 냈고 경찰 조
사를 앞두고 있었다. 설득 끝에 규석이는 경

찰 조사 후 오후 늦게 캠프에 합류했다. 이렇
게 4명의 아이들이 어렵게 모였다.
첫 만남에서 아이들은 데면데면했다. 다영
이는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틈만 나
면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규석이는 오토바이
를 타고 몰려다니는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한
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캠프가 재미없으면
언제든 친구들과 불러 사라질 태세였다. 규석
이와 함께 참석한 다혜는 “오렌지와 딸기를
먹고 싶다”며 탄 생각만 하고 있었다. 내성적
인 민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굳게 다문 입을
쫄뻐 열지 않았다. 캠프로 이동하는 2시간 동
안 아이들끼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캠프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 어색
이름 3행시 짓고 협동그림 그리며
하나둘씩 어색사리 속마음 털어놔

◆어색한 분위기 깨기=강사들은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보조인력은 물론 취재기
자들까지 프로그램에 동참시켰다. 자기소개는
3행시로 했다. 민영이에게 강사를 이름으로
3행시를 짓는 미션이 떨어졌다. 강사들이 먼저
민영이의 이름으로 시를 지었다. 아이들도 각
자 지은 3행시를 발표했다. 서로 다른 개성들
이 조씩씩 모습을 드러냈다. 첫날 일정 대부분
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데 할애했다.

‘협동 그림’ 순서가 이어졌다. 방식은 각자
색연필로 백지에 도형을 하나씩 그린다. 한
명이 한 가지 색깔만 사용해야 한다. 도형이
그려진 종이는 옆 사람에게 전달되며 다시 그
림이 더해진다. 이렇게 모두 돌아가면 자신이
처음 손댄 그림이 돌아온다. 색깔로 자신의
그림에 덧칠한 사람을 식별해내는 순서가 이

캠프 마친 학교이탈 청소년 4인 소감

“말도 못한다고 자책하며 살았다.
발표를 자꾸 하니까 자신감이 붙었다.
자살하고 싶을 때로 돌아갈까 두려
웠는데 조금 느긋해졌다”

이민영

“아버지와 통화한 후 훌쩍내졌다.
화해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 같다”

박규석

“나라는 존재에 대해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다. 좀더 전략적으로 살겠
다는 결심을 했다”

김다혜

“막연히 교육 받은 애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다. 학교로 돌아갈 방법, 검정고시
보는 방법도 알아볼 거다. 누가 날 도움
수 있는지도 찾아볼 것이다”

최다영

어졌다. 아이들은 훌쩍거리며 참가자들에 대
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간단한 카드게임 후에는 꼴찌에 대한 벌칙
이 논의됐다. 다영이가 짓궂게도 강화도 앞바
다 입수(入水)를 제안했다. 가혹하다는 의견
에 밀렸지만 분위기는 한결 유쾌해졌다. 벌칙
은 저녁식사 뒤처리로 결정됐다.
◆과거 상처와 마주하기=과거 상처를 고
집어내는 일도 강사들이 먼저였다. 젊은 남자
강사는 아버지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뒤 사
업이 망하고 온 가족이 빈민가 쪽방에서 생활
했던 얘기를 했다. 그는 “아버지 사업이 잘돼
넓은 집에서 살다 단 며칠 만에 단칸방에 가
족들이 함께 자게 됐다. 그 뒤 불면증이 시작
됐다”고 털어놓았다. 아이들은 주로 학교를
그만둔 상황을 말하도록 했다.

어른들의 실망한 표정과 무관심
감춰둔 상처 이야기하며 공감대
잡시 잊고있던 꿈도 다시 꾸게돼

명상이나 최면기법도 동원됐다. 편안한 음
악 속에 눈을 감도록 했다. 좋지 않은 일을 겪
고 있는 자신을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했다.
괴로워하는 자신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도
록 한 뒤 점점 다가 “이제 괜찮다”라면서
깨어나도록 했다.

다영이는 가슴앓이가 길거리에서 천천히
게 붙잡혀 혼란 일을 떠올렸다. 고교로 진학하자
마자 담임교사가 “여기는 네가 다닐 학교가 아
니다”라며 자퇴를 종용했던 기억도 꺼냈다. 다
영이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
기하니 화가 나서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규석이는 사고를 치고 난 뒤 아버지의 실망
한 표정과 무뎠던 눈빛을 보고 더욱 상
처 입은 자신을 그렸다. 규석이는 “고통스러
웠지만 눈을 뜨니까 다 지나간 과거라는 느낌

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다혜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처음 본 날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옆에
모르는 아저씨가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 하더라.” 다혜는 어머니와 살고
있으며, 이혼한 아버지는 중국에 있다.

◆작은 성취감 맛보기=이틀남은 오전 내
내 산책과 체육활동으로 맘을 풀었다. 여자
아이들은 서로 화장을 해줬다. 오후부터 강사
들은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프로그램을 준비
했다. 우선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겪었던 일들
을 얘기하도록 했다.

다영이는 돈 벌면서 당했던 설움, 이를 악
물고 열심히 일해 인정받았던 기억을 떠올렸
다. 첫 월급을 타 부모에게 선물했던 얘기도
했다. 강사는 “그것은 학교에서 얻을 수 없다.
열정을 배운 것”이라고 하자 다들 비슷한 경
험이 있는 듯 표정들이 환해졌다.

자신감이 붙은 아이들에게 강사진은 ‘3분
스피치’ 방법을 강의했다. 시선을 처리하는
법, 청중과 눈을 마주쳐 주목하게 만드는 기
법이 소개됐다. 아이들은 여러 차례 리허설을
거친 뒤 본 무대에 섰다. 규석이는 발표에서
“미용실에서 실습하고 있다. 역대 연봉을 받
는 헤어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이들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났다.

부모에게 전화하기 미션을 앞두고 강사진
과 아이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전화 한 통으로 관계가 좋아질지 의
문을 품는 듯했다. 망설이던 아이들이 강사들
의 설득에 하나둘씩 나가서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까지 망설이던 규석이는 결국 휴대전
화를 손에 쥐고 밖으로 나왔다.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캠프를 기획한 박진
용 교육컨설턴트는 “아이들의 문제는 결국 어
른들의 문제라는 점을 2박3일 동안 실감했
다. 아이들은 언제나 변화할 준비가 돼 있었고 그
계기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이곳 강사
들은 단지 아이들 얘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
고 격려해줬을 뿐이다. 그러자 아이들은 스스
로 변화를 찾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강화=특별취재팀

학교이탈 청소년 심층 인터뷰 40명 그후...

거리의 아이들 대부분 행방 묘연... 다 어디로 갔을까

국민일보의 ‘학교 떠난 아이들을 품자’ 시리
즈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학교이탈 청소년
40명의 심층 인터뷰가 토대였다. 가정폭력,
부모 이혼, 교사와의 갈등, 공부 스트레스 등
아픈 상처가 실재처럼 영건 채 방황했던 아
이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전국을 떠돌며 길거리 생활을 했던 문제
아(이하 가명·19)는 현재 소년원에 있다(본보
2014년 1월 6일자 참조). 휴대전화 절도와 금
품 갈취로 생계를 해결했던 문제였다. 결국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뷰 당시 문제는 “이제 물건 안 훔쳐요. 정
신 차려야죠”라며 스스로 다짐하듯 말했다.
사회안전망을 벗어난 채 살아가는 문제는 결
국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길거리 생활을 했던 아이들 대부분은 연락
이 두절됐다. 기자들이 인터뷰하면서 아이들
을 만났던 서울 신림동 일대는 다른 아이들이
채우고 있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준석(19)
은 “예전에 같이 지내던 애들은 다른 구역으
로 갔어요. 그 뒤로 연락 안 해왔어요. 지금은
뭐하고 지내는지... 원래 (뽀빠가) 자주 바뀌
어요”라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준석은 휴대전
화에 저장된 번호로 송희(18·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
리는 “없는 번호입니다”였다. 다른 친구에게
도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고객의 사용으로
당분간 착신이 중지됐다’는 메시지가 흘러나
왔다. 준석과 거리에서 어울렸던 아이들 대부
분의 행방이 묘연했다.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범죄 유혹에 빠져 소년원 가기도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아무도 몰라
가정 온전한 아이들은 학교 복학
“뛰쳐나가고 싶지만...” 적응 노력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리의
아이들은 이런 일에 익숙해 보였다.
학교로 복귀한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가정
이 온전한 아이들이었다. ‘가출범’ 리더로 무
리를 이끌었던 제호(18)는 복학생으로 동생

들과 수업을 듣고 있다. 형(22)의 끈질긴 설
득이 제호를 학교로 이끌었다. 그러나 제호는
여전히 학교 적응을 힘들어하고 있다. ‘심심
해’라고 적혀 있던 제호의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 대화방이 ‘학교’로 바뀌었지만 제
호는 “여전히 학교 공부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학한 지 일주일 만에 세 번이나 지각했다.

자퇴를 결심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교로 복귀한 중영(19)이는 수능 공부에 매
진하고 있다. 하루 한 갑씩 피우던 담배도 조
금씩 줄여나가며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중영이는 “지금도 답답해 뒤통나갈 생각을 한
다. 그러나 딱 1년만 더 참고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것 다할 것”이라며 웃었다.

특별취재팀

국민일보 학교이탈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

Table with 3 columns: 구분 (구분), 1일차(3월 3일), 2일차(3월 4일), 3일차(3월 5일). Rows include 오전, 오후, 밤 activities and goals.